

교회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제3차 홍해작전 6월 6일에 개시

우리 교회는 오는 6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 동안 제3차 홍해작전을 전개한다.

이미 우리 교회는 두 차례의 홍해작전(88년 홍해작전, 89년 시온성대행진)을 전개함으로써 교회적으로는 크게 부흥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켜 영적 각성운동의 진원지로 그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제3차 홍해작전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주제 아래 지난 2차에 걸친 홍해작전을 통하여 이룩한 영적 각성을 말씀과 기도로 지속시키며 생활 속에 적용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소금과 빛의 생활 운동을 전개하여 2천년대의 성숙한 교회상과 가치관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모조직

- 사령관/이종윤 위임목사
- 참모장/우기전 장로
- 부참모장/김성운 목사, 노광현 장로
- 기획참모/송태근 목사, 김재명 장로, 윤성철 장로
- 행사참모/김학진 목사, 노문환 장로, 임무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자나라”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주제 성구로 삼고,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주제 찬송으로 정하고, 비상재난기도회와 특별집회를 개최하고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리 교회는 도덕과 윤리의 타락, 과소비, 사치 풍조, 노사 문제, 부동산 투기와 물가 폭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 등 산적한 갖가지 사회 문제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오늘과 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 홍해작전을 통하여 기도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회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여 본을 보이교사 하는 것이다.

집사, 이부성 집사, 정경자 권사

- 동원참모/이세열 목사, 강은원 장로, 최순복 전도사, 김여순 집사, 방계운 권사
- 봉사참모/최인근 목사, 문홍구 장로, 이동명 집사, 이명자 권사(B)
- 홍보참모/김창수 목사, 정광호 장로, 김경성 전도사, 윤봉준 집사

스데반회 제6대 회원 환영회 및 월례회 가자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스데반회는 지난 4월 29일 오후 4시 30분부터 본당 1층 제2다락방에서 제6대 회원 환영회 및 4월 월례회를 가졌다.

1부 순서로 윤용규 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린 후 다과를 나누며 교제를 하는 가운데 환영회와 월례회를 가졌다.

2부 환영회 시간에는 제6대 회원 소개와 임원 소개를 하고 스데반회의 고문인 윤병식 장로의 권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교회행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스데반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회장인 김여순 집사의 인사 및 현황보고가 있는 데 4월 월례회를 진행했다.

장년 2부 특강

장년2부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2시30분에 소석관 414호에서 “기독교인의 소비철학”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가졌다.

강사는 소비생활교육원 원장이며 서울 YWCA이사인 우리 교회의 전성재 권사로, 현대대의 과소비를 지적하며 즐거운 소비생활을 위한 비결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생활에 대해 강의하였다.

전국 목회자세미나 제5학기 개강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 연구원이 주관하는 교회 개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세미나 제5학기 개강(5월 7일) 개강한다.

이번 학기는 7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목회자와 성경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제1교시에는 우리 교회 이종윤 목사가 예배소서를 중심으로 다.

강의를 하고, 제2교시에는 유영기 교수, 김익원 교수, 김선도 목사, 한철하 교수, 정원태 교수, 박종렬 목사, 이진태 교수, 이연옥 박사, 정진경 목사가 성경해석, 구속사적 성경 연구, 목회자의 자기관리 등을 강의하여 성경 해석의 올바른 이해와 목회자 자신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중등부 초청전도집회 마쳐



중등부는 지난 4월 29일 갈릴리 홀에서 초청전도집회를 개최하였다.

“와보라”는 주제 아래 이 집회를 위하여 회원들은 예매한 달전에 태선자를 정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하여 왔다.

1부에서는 예배를 드렸는데, 중등부 지도를 맡고 있는 김은태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

을 기뻐하신다”라며 새로 나온 학생들을 환영했다. 2부에서는 찬양, 무연극, 찬교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였다.

청년 1,2부 '90경로잔치 열어

우리 교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하여 오는 5월 10일 낮 11시에 갈릴리 홀과 만나 홀에서 경로잔치를 연다.

청년 1부와 2부가 주관하고 구제위원회가 후원하여 여천도회가 봉사하게 될 이 행사에 만 70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가운데 하나는 양극화(Polarization) 현상입니다. 성질상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놓고 극단적 대립 또는 분열을 하는 사례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터져나오는 ‘결사반대’의 구호가 숨막히도록 들려오는 와중에서 자기절대 가치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며 실제로는 국가민족사회에 엄청난 손실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설익은 방법으로 백성을 우롱하는 거짓지도자들의 대사에 관객들은 이미 흥미를 잃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기울어버리는 작금의 사회변동에 우리는 놀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라는 사회적 통념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재가금 성난 이리처럼 자기 먹을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시비하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오고 윤리도, 도덕도, 상하 좌우도 모두 무너져 버리는 무서운 때를 만난 것 같습니다.

바로의 궁에 여호와와 밤이 찾아오듯 심판의 때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일 뿐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벌거벗은 마음으로 엎드렸듯이 민족이 건나야만 할 홍해 앞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작전을 벌일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넘고 건나야 할 홍해가 무엇인지를 교회적 차원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며, 가정적으로도 확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3차 홍해작전의 출발을 알리는 호각은 이미 불어졌습니다. 충현의 가족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군화를 신고, 의의 홍배와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낙오자가 없이 이 행군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0. 5. 6

이종윤 목사

제27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개최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내일(5월 7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월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열린다. 금년으로 27회를 맞은 이 기도회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 목사 및 장로들이 참가하게 된다.

이번 기도회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딤후 6:18)는 주제 아래 모두 열 차례의 집회를 갖는데, 우리 교회 이종윤 목사를 비롯하여 이성택 목사, 예봉학 목사, 박영희 목사, 신홍식 선교사, 유영식 목사, 신성종 목사, 한춘기 목사, 예성현 목사, 정문호 목사가 설교를 한다.

우리 교회는 이 기도회의 은혜로운 진행을 위하여 교역자, 시무

장로, 안수집사, 권사회 임원 및 담임전도회 임원을 중심으로 환영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오늘 오후 5시에 선교관 501호에서 모임을 갖는다.

충현기도원 식당의자보수

지난 4월 24일에 충현기도원은 그곳을 찾는 많은 성도들에게 더욱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식당 의자 80개를 보수하였다. 해전도회 협의회가 50만 원을 지원하여 수선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배울전도회 임원과 기도원 직원들에 직접 보수 작업을 진행하여 예상했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섬기는 기쁨도 만끽할 수 있었다.



성경 강해

이 중 윤 목사

예수님과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요 8:52~56)

요한복음 8장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11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누가 먼저 계셨느냐라는 논쟁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급하시기도 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브라함을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언급되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육신적인 자손은 될는지 모르나 영적인 자손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자존심을 떨어뜨릴 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논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행동만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논리성을 무시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며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힐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또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돌았다고 하며 강력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이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무서운 말들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제일 가깝게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브라함이 더 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언약을 받고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그 무엇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이미 오신 분으로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요 8:55) 이 성경구절을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안다’는 단어가 두가지로 사용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이고, 예수님께서 안다는 것은 ‘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것은 배움과 관찰과 경험을 통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는 것은 본질적이고 직관적인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지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지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는 자는 진실을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는 거짓을 말합니다. 아는 자는 말씀을 지키며 알지 못하는 자는 지키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교훈을 찾아봅시다.

1. 아브라함의 영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인생 최고 최대의 영광으로 여기고 자랑스러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에

게 되었고, 일어나서 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귀히 여겨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재산과 안락의 자리에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인생의 경향성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계획이 이루어질지 그렇지 못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인생의 목표와 방향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것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2.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환경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제일 먼저 닦진 것은 경제 문제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을 때 기근이 심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했고 급하기는 하여 애굽

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제거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귀신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사상과 나타내신 역사를 믿고 그것이 우리를 각자에게 임하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 아브라함의 희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이 아닙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 8:56)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높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우리들의 자랑이요, 우리들의 영원입니다.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계설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천년의 거리가 있는 데도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있었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므로 이삭을 바쳐도 다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저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삭을 졌습니다. 손에 내려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칼이 목에 닿는 순간 아브라함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양을 때려 준 배화했고 그 땅 이름이 예호와 아레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을 모델로 삼고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겨 축복받은 충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백성 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

부귀를 한 몸에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들로 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존귀를 받는 사람은 부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 부터 존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세상의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도 모르는 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예를 소중히 알고 부귀를 소망하며 안락과 평안을 쫓아다니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신앙 따위는 쉽게 뺄어버립니다.

우리들은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소경은 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귀머거리들은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병어리는 말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앓은병어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불 것을 보게 되었고, 들을 것을 들

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범죄도 하였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만 의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부딪힐 것은 가정 문제였습니다. 조카 롯이 숙부를 제쳐놓고 좋은 땅을 찾아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원수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아브라함이 군대를 끌고 가서 찾아오는 위험한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돌격발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마지막 어려움은 백제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자식을 남산에 끌고 올라가서 남의 손에 아니라 내 손으로 목을 치지 마치라고 하시면 누가 할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보편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이삭을 해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라도 여자로써의 기능이 끊어진 죽은 자와 뺄불한 사람입니다. 그

■ 전국목회자세미나 제4학기 참가 소감

신선한 충격과 도전받는 기회

장 병 기 목사 (금현교회 시무)



20세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영향을 끼친 운동을 꼽는다면 빌 브라이트 박사의 대학생선교회운동, 빌리 그레함 목사의 대형 대중전도운동과 도날드 맥가브란 박사의 교회성장운동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근래 한국의 교역자들에게 가장 관심도가 높은 교회 운동이 교회성장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구태여 맥가브란 박사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성실히 순종하는 일이고,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전 4:6,7)는 말씀은 교회성장은 그것이 양적인 성장이든 질적인 성장이든, 또는 지리적, 인종적인 연장 성장이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이 언급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과 교회성장 문제를 우리도 인간 편에서 연구할 수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교역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교회성장에 대하여 학문적으로도 연구해 보고 대교회로 성장한 교회의 성장 비결을 배워 보고자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필자뿐 아니라 천명이 넘는 경향각지의 교역자들이 중원교회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

다. 물론 올해만 해도 서울을 비롯, 대도시의 웅만한 대교회들이 이름이야 어떻든 비슷한 모임을 개최하였기 때문에 1학기때 보다는 수강자들이 조금 늘었지만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다. 멀리서, 가까이서 모인 천명이 넘는 주님의 종들이 갈릴리 홀을 꼭 메우고 강의를 열심히 경청하는 것을 볼 때 한국 교회의 앞날은 밝기만 하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교회성장연구원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당장 교회가 부흥하리라는 기대 보다도 이 모임에 참석함으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여러모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미약한 농어촌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탈진 상태에 빠질 때가 종종 있고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저하되기 쉽다. 그런데 한 주간에 한번씩 여러 교역자들이 한 데 모여 강의도 듣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받으며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된다.

제4학기의 주강사인 이종운 목사의 요한복음 신학을 통해 생명 문제, 믿음의 개념, 성령론, 주(主) 개념, 사랑의 문제, 특히 인자 사랑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 요한복음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던 것이 필자에게는 큰 수확이었다.

또 교회와 국가에 대한 제3회 중원복음심포지움을 통해 국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이단종파 문제에 있어서는 뒷맛이 개운찮은 점도 없지 않았으나 대국

가관계에 있어서는 개 교회에 정력을 쏟다 보니 자칫 소홀하기 쉬운 국가에 대한 관심도를 고양시켰다고 보며, 종교의 자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한계점을 보는 것같이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다.

제2교시는 우리나라 굴지의 강사들을 초빙하여 매우 유익한 내용들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개종에는 우리 일선 목회자들의 시급한 당면과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강의하여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았다.

이 지면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아무리 천천한 사람들도 같은 일을 오랫동안 되풀이 하다보면 짜증이 나고 불친절하게 되는 것이 흔한 일인데 빨간 제복을 입고 안내하는 남자집사님들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고, 네 학기 동안 항상 보아도 강의실 입구에서부터 미소로 대해 주시고 친절히 안내해 주셔서 성장연구원의 이미지를 한층 돋보이게 해주었다. 그리고 언제 보아도 싫증나지 않는 팔색한 한국 차림으로 유인물을 배부하시고 간식과 음료수를 나눠 주시는 여성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부어라고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또 중원교회 교역자들과 직원들의 수고로움을 조금은 알 것 같은 필자로서 교역자 여러분들과 실무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아끼지 않는다. 하루를 쉬어야 할 월요일에도 수강자들 때문에 전원 출석하여 여러모로 수고를 아끼지 않

는 것을 볼 때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 마음도 금할 수가 없었다. 여러 사람들의 이런 헌신과 봉사가 대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하는 데는 공부하는 재미도 있지만,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과 아울러 흥분마저 느꼈기 때문이었다.

끝으로 교회성장연구원에 이 지면을 빌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수강교역자들로 하여금 원우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교역자들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교역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목회자세미나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함이 어떨까 한다.

다. 또한 회원주소록을 만들어 교역자 상호간의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으면 한다. 세미나 준비자들이나 강사들이 바쁘시겠지만 강의안을 미리 받아 교안을 만들어 배부한다면 강사들께서도 더욱 성의 있는 강의를 준비하시게 될 것이고 수강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제2교시를 10주에 열분의 강사가 맡아 수고하시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 산만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2교시 강사를 6명쯤으로 하된 한 분에게는 그 학기의 주제에 맞게 집중적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더 깊이 있는 세미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축헌금

중원 복지마을, 사랑의 집, 박갑래, 임신실, 김주아, 김영달, 유성남, 이연출, 심귀래, 서영자, 권영옥, 김유찬, 김주연, 정영덕, 김희숙, 박윤석, 이동성, 금호순, 송재일, 박현주, 김종성, 백기영, 박필례, 김성조, 정동진, 배종경, 최복선, 양근식, 이명금, 김영진, 홍영주, 윤선희, 김단용, 박경열, 홍송순, 이무강, 정장준, 김계순, 최선자, 마도원, 현정남, 남혜숙, 김유찬, 김주연, 강희창, 장요성, 박성순, 김홍환, 김미란, 이경옥, 이슬기, 김철영, 김상호, 윤이남, 박두호, 한성옥, 전일장, 김익환, 우영하, 이흥기, 이훈숙, 황명하, 이갑재, 한숙원, 한병구, 이인숙, 이예강, 강정옥, 윤채현, 조창선, 이재일, 염숙현, 안숙아, 김은숙, 최병순, 고임생, 지상연, 원도화, 김용복, 유순녀, 전영주, 소재철, 김화순, 김문섭, 홍경숙, 이명균, 고효영, 초동5부, 마리아11, 진정에, 최만열, 이규숙, 김정엽, 마리아14, 한나7, 에스더13, 손경순, 이상순, 황성례, 전정순, 무명7



행복한 가정



송 환 창 장로

요즈음 선풍을 보노라며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가 그렇고 중학생과 국민학생인 어린 남매가 아버지를 죽이고 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는 소식이 우리의 귀와 눈을 어지럽히니 말이다.

여하간에 기독교도가 일천만을 헤아린다는 이 나라가 정말 어래서 되겠는지 자문해 보면서 과연 가정은 건재하며 인륜과 도덕이라는 것이 남아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국가적으로도 5월을 어린이날과 함께 어버이날을 정하여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다시금 5월을 맞이하여 성도의 행복한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철저히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

고 켜어져가는 이 사회의 소금이 되는 성도의 가정 생활을 다시 한번 실천하기를 다짐하자.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부터 가정을 창설하셨으니 가정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해주신 귀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정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며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 잔치에 칭함을 받으시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

첫째,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인격을 존중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린이라고 해서 무시되어서도 안된다.

가족 상호간에 서로의 인격(하나님 형상)을 귀히 여길 때에 부부가 서로 죽이고 자녀가 어찌 부모를 학대할 수 있겠는가.

둘째, 행복한 가정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한다. 잠언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교훈하고 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

이 세상에 귀한 것도 없고 위대한 것도 적지 않지만 나를 낳으시고 길러 주신 부모의 은혜를 그 무엇에 비

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셋째,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넘친다. 예수님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셨는데, 부부간은 서로 사랑하기를 제 몸 같이 하여야 한다. 또 돌아온 탕자를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반기는 아버지의 사랑에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다. 사도 바울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함이 약속 있는 계명이며 그것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임을 가르치고 있다.

넷째, 행복한 가정은 항상 감사가 넘친다.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릴 때 동물처럼 천한 존재로 타락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하였거니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순탄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분주하거나 한가하거나, 또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언제나 뉘에 감사하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음호 세기동은 김천체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황량했을 끌고 다 언덕도 지금은 집들이 뽕뽕하게 들어서 있었다.

언덕 위에는 큰 교회(가톨릭계)가 세워져 있었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던 바위가 유리벽에 가려져 있었는데 그 바위에는 움푹 패인 구멍이 여러개 있었다. 그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얹어놓았던 바위와 무덤이었던 굴이 복잡한 장식품으로 장식되어 보존되어 있었다. 이 모든 곳이 당시의 정확한 그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가해져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행 8:1), 또 주후 70년에 로마의 제 침공으로 디도 대장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였으며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콘스탄티누스 대왕의 밀라노 칙령(주후 313년)이 발표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던 관계로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후 콘스탄티누스대왕의 어머니 성 헬레나가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몇년씩 고생하며 기념될만한 성지를 찾아냈다고 하는데 그때도 남아 있던 유대의 랍비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기념 성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발걸음을 옮겨 시온 산(다윗의 무덤, 최후의 만찬 장소)과 솔로몬 성전 행각 밑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다윗성 삼하 5:7, 압살롬 기념비 삼하 18:18, 스데반의 순교지)와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감람산에 다다른다. 이곳에 겿새마네(마 26:35; 눅 22:39) 동산이 있고 주기도 기념교회(눅 11:1; 마 6:7), 승천교회(눅 24:50; 행 1:6)가 자리하고 있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한(삼하 15:30~32) 곳이기도 하다.

성지순례

마음속의 성지와 실제의 성지(2)

노 광 현 장로



또 가까이에 벳바게와 베다니(막 11:1) 나사로의 무덤(요 11:38), 마리아, 마르다의 집(눅 10:38) 등 기념되는 곳들이 있다. 베들레헴고장의 라헬 무덤(창 35:19), 다윗의 고향(삼하 16), 예수님 탄생(눅 2:1)하신 곳, 어린이 살해장소(마 2:16) 등 이런 성지가 현재는 예루살렘 시가지 안에 있어서 택시나 버스 혹은 도보로 다녀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이 수많은 성지들은 지면을 통해 다소 개할 수도 없고 더구나 하루에 다 볼 수도 없다. 가는 곳마다 당시를 상상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신학적인 해석을 듣고 믿음을 다지며 돌아본다면 최소한 예루살렘에서만 2주일 정도는 걸릴 것 같다.

다음날 발굴중인 여리고 성을 거쳐 요단 강과 갈릴리 호수에 다다랐다. 성경 속의 요단 강(수 3:13, 4:18)을 보고 실망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정능계곡이나 도봉산계곡만도 못했다. 그것은 강이 아니라 시냇물이라고 밖에 할 수 없었다. 왜 이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수천년 동안 지내면서 큰 지진으로 인한 지형 변동과 현대에

와서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하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조정하므로 요단 강에 물이 흐르지 못했기 때문이라 한다.

6일 전쟁 후 갈릴리 호수와 요단 강 서편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하였고 요단 강 건너 동편은 요르단 왕국이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호수이며 최대의 젖줄이다. 수심은 깊은 곳이 210미터이며, 길이는 21킬로미터, 폭은 12킬로미터이고 총면적은 165평방킬로미터이다.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마 4:18), 디베라 바다(요 6:1), 긴네렛 해변(민 34:11; 수 13:27), 게네사렛 호수(눅 5:1)로 명명되어 있는데 바다가 아니라 민물호수이다. 이곳은 예수님의 중심 선교지이며 제자들의 대부분이 이곳 출신이다. 어부를 부르심(막 1:16; 눅 5:12; 마 4:18), 말씀으로 풍랑을 멈춤(마 8:23), 물위를 걸으심(마 14:22; 요 6:16), 산상수훈(마 5, 팔복산), 게네사렛(막 6:53), 마리아의 귀신을 쫓아내심(눅 8:2), 오병이어의 기적(막 6:32), 가버나움(예수님의 선교본부 마 4:13; 막 1:14,

회당서 가르치심 눅 4:31, 예수님의 마을 마 9:1), 거라사(막 5:1~16) 등 이외의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곳이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이다(요 21). 이곳에는 베드로의 생각도 발굴되어 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예수님과 풍랑을 생각하며 선상예배를 드렸고 호숫가 한적한 곳에서 이 고장에서 만든 포도주와 빵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팔복의 복음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들판에서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 보며 앉아 있으니 그 옛날 2천년 전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가나 지방을 지나 나사렛에 왔다. 가나와 나사렛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관계로 일요일에 철시하여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한다.

이곳에 살고 있는 가난한 아랍계 여인들, 즉 머리가 검고, 검은 눈동자에 큰 눈을 가진 여인들과 어린이들 속에서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그려보았다. 그것은 이스라엘 국민이 2천년 동안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인 나라이기 때문에 각종 인종으로 변하여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로 뭉친 것이다.

그외의 여러 성지와 고적들을 보고 그리스로 건너갔다. 그리스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좋은 경관과 온화한 기후로 천이백개에 달하는 많은 섬들과 해안은 세계적인 휴양지가 되어 있다.

옛 고린도 지방에 있는 고린도 유적과 바울 기념교회를 보았다. 그 옛날 바울이 세운 교회와 도시는 사라지고 신시가지에 새로 세운 기념교회(회람 정교회)가 있었는데 성전문 돌판에는 제1대 성직자 바울, 제2대 성직자 아볼로라고 써놓아 자신들이 정통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를 떠나 영국 런던에 도착했다. 이집트와 그리스를 둘러보고 다시 찾은 대영박물관에 대해 느끼는 바가 새로웠다. 이곳에는 이집트 국립박물관보다 미이라와 피라미드에서 나온 유물이 더 많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리스에는 없는 그리스의 신전 벽화와 무덤, 건물의 조각이 전시되어 있다.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때 우리의 것을 약탈했던 것처럼 대영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유물들은 그 나라에서 약탈한 것들이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성도들은 각자의 형편이 닿는 대로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자취들을 찾아 보고 성경의 내용들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되어 자신의 신앙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한다.

좀 더 젊었을 때 성지 순례를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이라도 성지를 순례하며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끝]

현대라방

제19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엡 6:1~3

요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찬송: 234, 304

설 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의 모든 질서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모의 권위와 노인의 지혜가

경시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제

1.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다음 구절을 찾아서 읽고 답을 하세요.

(1) 출 20:12 (2) 신 5:16 (4) 엡 6:3

2. 부모에게 불효할 때 어떠한 보응을 받게 됩니까? 다음 구절을 찾아서 읽고 답을 하세요.

(1) 출 21:15~17 (2) 신 21:18~21 (3) 잠 30:17

3. 마 15:4~6을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자신들을 반성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